

SND 01

Hello.

My name is KT. I registered on this site but forgot about it for a while, so I just saw your message. I was born in South Korea and live there. I have a loving wife and daughter, and I work at a company.

Norway is a country I added to my bucket list because I want to see the aurora borealis. However, vacations in South Korea are very short, and my daughter is still in school, so I don't have much free time.

I consider myself quite old-fashioned by today's standards, so when I think of pen pals, I always think of snail mail. However, I don't necessarily have to use snail mail. I would like to share ordinary events from my daily life or interesting news through pen pals.

Since I don't visit this site frequently, my response may be delayed. I apologize in advance for any inconvenience. Thank you.

Sincerely
Kyung-tak (KT)

안녕하세요 .

저는 KT입니다 .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. 저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. 저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.

노르웨이는 제가 bucket list에 추가한 나라입니다 . 왜냐하면 북극광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. 하지만 한국에서 휴가는 짧고 딸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.

제 기준으로는 요즘 기준으로는 꽤 오래된 사람입니다 . 그래서 펜팔을 생각할 때는 우편물을 생각합니다 . 하지만 꼭 우편물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. 저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이나 재미있는 소식을 펜팔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.

저는 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.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.

감사합니다 .

KT (KT)